

02

파트너, 그 이상의 세무행정

- 전국 최초, 기업의 성장을 돋는 세무설명회 개최 -

프롤로그: 세금,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요람입니다. 수많은 혁신 기업이 테헤란로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 청년 기업가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 같은 지방세 규정은 전문적인 세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사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몰라 수억 원의 가산세를 맞고 폐업 위기에 몰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 법인조사팀은 그동안 수많은 기업을 조사하며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몰라서 추징당하는 일은 없게 해

